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인 그룹 JYJ가 대회 개폐회식 무대에서 제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앞서 다양한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며 현실을 개선해 왔다. 사진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억울한 JYJ...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인천AG 개막식 참여 논란으로 본 투쟁사

2009년 전 소속사 SM과 불공정계약 소송끝에 '전속계약 7년 못넘는다' 표준계약서 만들어내 AG 홍보대사 불구 개막식 무대 출연 배제 논란 소속사 "조직위 약속 불이행 사태 없기 바란다"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질 조짐이다. 이를 예상하고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으려 했다. 부당한 현실에 맞서 치열한 걸음을 뚝뚝씩 걸어왔던 터, "절대 약속을 어길 일이 없다"는 다짐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는 결국 어김이 없는 것일까.

그룹 JYJ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로 발탁돼 2년여 동안 아시아를 돌며 대회를 알렸다. 공식 주제곡인 '우리 유'까지 불렀다. 하지만 정작 개폐회식 무대에선 제의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속사는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약속 불이행이 JYJ가 그동안 겪었던 비상사태이고 불공정했던, 외압에 의한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JYJ는 그동안 부당하게 당해야 했던 처사를 딛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다.

● "부당함을 알리고 끝까지 싸울 것"
JYJ의 '투쟁'은 처음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미미해



JYJ는 지난해 2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를 맡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사진제공 |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보였다. 하지만 "부당함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행보의 의의를 찾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바쁘지만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보람도 크다.

그 성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예계 표준계약서를 이끌어낸 점이다. 2009년 7월 말 이들이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통용됐던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다. 기획사에만 유리한 계약 기간과 수익 분

배 문제는 연예계 '노예계약' 논란으로 번져 사회적 관심이 됐다. 이 일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획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한다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현재 SM을 포함해 각 연예기획사는 10년 이상 장기 계약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새로운 전속계약을 적용하고 있다.

● "방송과 공연장 제약? 해외로... 해외로..."
JYJ는 오히려 제한과 제약을 많이 받을수록 더욱 빛을 발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앨범 유통과 공연장 대관 등 가수로서 일상적인 활동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외압이 작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커져만 갔다.

하지만 이는 해외에서 앨범을 제작하고 아시아 각국을 돌며 해외투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됐다. 특히 아시아를 넘어 한류 불모지로 여겼던 남미와 유럽에까지 발을 넓히며 케이팝의 신 시장을 선구적으로 개척했다. 이들의 무대 이후 현재는 많은 케이팝 스타들이 남미와 유럽에 얼굴을 알리고 있다.

JYJ는 그동안 음악프로그램 등 방송 출연 논의 자체가 불발되거나 출연 하루 전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심지어 음원발매 전 홍보 활동과 관련해 유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취소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당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JYJ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고 말한다. 다만 불공정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사 행위에 경종을 울려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좋을 뿐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취재 파일

AG 조직위, JYJ 개막식 배제 의혹 '최우선' 홍보대사 계약서 거짓인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대회 홍보대사이자 주제를 부른 그룹 JYJ를 개막식 무대에서 배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JYJ는 2013년 2월부터 대회 홍보대사를 맡아 해외 홍보에 앞장서왔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열린 홍보행사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JYJ가 식전행사에 선다"고 했다가 비난 여론에 쫓겨 "본 무대에 오르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조직위는 지난 5년여 동안 JYJ가 수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인정하며 '홍보대사 계약서'에 'JYJ를 최우선시한다'는 조항을 넣어 문서로 약속했다. 공정기관으로서 조직위가 계약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역대 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는 스포츠 무대에서 주제곡 순서가 개막식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따라서 대회 공식 주제곡을 부른 가수가 개막식에 서지 못하는 건 해외에서도 웃음을 살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 결국 조직위가 JYJ를 토사구팽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직위와 개막식 총연출을 맡은 장진 감독은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아시아경기대회 장 감독은 1일 "뮤지컬 스타들이 출연하는 무대에 JYJ의 김준수가 참여하게 되면 JYJ 무대와 겹치는 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준수의 뮤지컬 무대, 주제를 부른 홍보대사의 무대는 별개로 봐야 한다. 더욱이 김준수는 뮤지컬 무대에 관한 사전정보도 얻지 못했다. 결국 이를 빌미로 JYJ의 주제가 무대를 검토한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JYJ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캐치프레이즈는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 JYJ가 부른 주제가 제목도 '우리 유'이다. 모두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직위는 그 의미를 스스로 내팽개치며 분열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트위터@ziodadi

JYJ 4년만에 컴백...8월 콘서트 매진

그룹 JYJ가 4년 만인 8월9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여는 컴백 콘서트 티켓을 매진시켰다. 2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공연 티켓 사이트에서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됐다. 소속사 측은 "JYJ의 컴백 소속이 전해지자마자 국내를 비롯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공연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매 경쟁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JYJ는 2010년 잠실 주경기장에서 첫 정규 콘서트를 열고 2011~2012년에 걸쳐 월드 투어와 2013년 일본 도쿄(東京)등 공연까지 연이은 매진 행렬을 기록해 왔다.

한편 JYJ는 '왕의 귀환'이라는 타이틀로 팬들과 만난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홍콩, 중국 상하이 등 아시아 투어에 나설 예정이어서 해외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1200만원 무이자대출상환 (서울/경기)

100% 국내산 토종 한우소곱창!!!

한우곱창전문점모집!!

한우소곱창의 특징

- 손질이 필요없다.
- 안정된 물류공급
- 좋은 곱창을 싸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 1차 가공하여 공급하므로 기름 제거나 굵의 변형이 없어 몇 개월씩 보관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 소곱창은 돼지고기와 달리 좋은 원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 기온변화에 민감하므로 손질해야 하는 작업이 많아 판매, 보관, 운송이 어렵습니다.

● 소곱창은 굵이 평평한데 특수 기술을 도입해 항상 굵이 차이는 상태를 유지하여 1차 가공해서 공급됩니다.

● 가격 역시 환한 가격대로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맛있게 소곱창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가격을 현실화 했습니다.

● 소곱창은 적은 필수재료 대비로 2~3회전만 하여도 기분이상한 매출이 올라 불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즉오픈

입증변경시 지원사항 - 특허무연초벌기 지원
외부간판(간판이), 통출간판(간판이), 전열LED조명공사, 전열팬, 실내현수막, 길라잡이단지(1인), 외부현수막, 실내보도판, 필지, 페넬티(1set), 명함, 사은품, 라이터, 티셔츠, 알지마, 각종비품 및 집기, 요리사모장, 요리교과 등

상담문의 ☎ 070-4351-5700

특이

한우소곱창구이 (1인분) ₩15,000	만우내장볶음 (1인분) ₩25,000	만우소곱창전골 (1인분) ₩25,000	특양구이 (1인분) ₩18,000	소맥항구이 (1인분) ₩11,000	육회 (1인분) ₩10,000
푸주미볶음 (1인분) ₩10,000	푸주미소곱창 (1인분) ₩10,000	석상푸주미 (1인분) ₩20,000	석상고추장볶고기 (1인분) ₩16,000	석상양념볶고기 (1인분) ₩16,000	석상무쌈떡볶 (1인분) ₩16,000

왕제점식특선
맛푸주미정식 (1인분) 8,000원

취급점 모집!!!

월 10만 원 씩 만 투자하세요!! (카드결제가능) (250만원)

간판과 상호는 그대로~ 메뉴만 추가하세요!!!

9,900원 무한리필

무한계장

간장계장의 특징

- 100% 국내산 서해안 꽃게를 사계절 안정된 물류공급
- 20년 전통의 본사 노하우 간장 및 양념 공급
- 저렴한 가격대로 볼거리 극복
- 요리사 파견 - 손질 및 관리 노하우 전수

☆취급점 지원사항☆
지역관계계약서, 요리사파견교육, 외부현수막, 실내현수막, 외부현수막, 외부페넬티, 1set, 주방비품(냄비, 찰떡, 기워, 용기등), 프토상판(냉동계, 간장소스, 계장양념, 냉동나지, 육수, 푸주미, 계장양념소스, 냉지양념) 등

푸주미볶음 **계장전골**

"무한리필간장계장" 덕분에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AVER **왕제무한리필전문점** 검색 **상담문의 ☎ 070-4264-2200**